여수 복원 거북선, 실물에 가장 가깝다

고증조사 거쳐 전통기법 제작… 복원율 90%

2층 구조 설계 공정률 68%… 연말쯤 진수식

여수시가 복원하고 있는 거북선이 실물과 가장 가깝게 복원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이 거북선은 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 연말께 진수식을 열 예정이다.

27일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 광장 앞 물량장 제작현장에서 열린 현장 브리핑에 참석한 중소조선연구원 손창련 본부장(공학박사)은 "전라좌수영 거북선은 목선의 구조상 15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으며, 200명 이상이 승선해도 롤링(기울림)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안정성 면에서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수의 전라좌수영 거북선의 복원율은 90% 이상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실물에 가까운 복원"이라고 덧붙였다.

16세기 임진왜란 당시 선박 바닥을 소나무·느티나무로 제작해 결구나무못을 사용했으나 현재 제작중인 거북선은 전통기법 외에 고강도 부재료를 일부 사용함으로써 이를 결박할 쇠못으로 시공했다.

또 전통 복원선의 특성상 기둥 역할을 하는 보를 설치하지 않은 대신 내부에 군수물자 등을 적재할 수 있는 내심방 구조로 제작했다는 것이 제작진의 설명이다.

전통 제작기법으로 제작중인 거북선은 고증조사와 기본계획 학술용역, 자문회의 등을 거쳐 중소조선연구원에서 기본·실시설계를 완성했다.

2층 구조로 설계되는 거북선은 전체길이 35.3m, 선체 길이 26.24m, 폭 10.62m로 총 177t 규모의 실물크기로 건립된다. 현재 외판 조립과 내심방 설치를 끝낸 상태다.

다만 고증자료가 없는 내부는 1790년대 고증 내용을 참조해 제작하고 있다. 판옥선과 같은 대선 크기로 8개의 노가 설치되며, 내부 화장실은 없다.

전라좌수영 거북선은 통제영 거북선과 비교해 용머리가 높고 선체 앞쪽에 귀두를 설치해 돌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여수시는 전라좌수영 거북선 제작과 함께 내부 전시물 설치를 12월9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현재 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전라좌수영 거북선.

김종식 완도군수, 사흘간 외딴섬 6곳 릴레이 방문

선착장 연장 등 민원 13건 해결방안 숙의

김종식 완도군수가 폭염과 가뭄 속에 허덕이는 외딴 섬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불편사항을 들었다. 김 군수는 지난 22일 군외면 흑일도를 끝으로 3일간의 외딴 섬 방문을 마치고 주민들이 건의한 13건의 민원 해결 방안을 숙의하고 있다.

완도군은 27일 "김 군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흑일도 등 6개 외딴섬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을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민선 3기부터 외딴섬 방문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위로를 위해 방문일정을 잡았다.

김 군수와 이번 외딴섬 방문을 통해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 선착장 연장, 여객선 증회운항, 오랜지호 항해 피해대책, 어린이 놀이터 시설 등 모두 13건의 건의사항을 접했다. 〈사진〉

또 가뭄 피해가 컸던 금일 신도에는 물 220병을 전달하고 가뭄 대책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 대한 도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금일읍 충도마을 김윤기 이장은 "국제행사 준비로 바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도서낙도 주민들을 잊지 않고 찾아줘 감사할 뿐"이라며 박람회 성공개최 성금 200만원을 기탁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군수는 "박람회 준비 등으로 일정상 내년에는 외딴섬 방문이 어려울 것 같다"며 "도서낙도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완도군의 외딴섬은 39곳으로, 이곳에는 1393가구 2629명이 거주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함평군, 체납자 애로사항 청취 납부 독려

방문징수 전담직원 지정… 고의적 기피땐 강력 행정처분

함평군이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총 체납액은 10억39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0만원 이상 체납한 319명(체납액 6억4100만원)이다. 군은 '방문 징수'를 위해 본청과 읍면 직원으로 징수반을 구성하고 체납자별로 전담직원을 지정해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무조건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처한 상황을 직접 확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하면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고의로 지방세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및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체납액이 누증돼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며 "체납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체납자는 강력하게 징수해 형평성을 갖춘 세정업무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고흥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고흥군은 27일 "201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마을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받아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예산에 반영해왔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부터 군민 누구나 편성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다.

주민의견 수렴은 오는 9월23일까지 계속되며, 읍면에 비치돼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면 된다. 주민의견의 반영 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예산편성에 있어 사회복지, 환경, 건설·방재 등 7개 분야에 걸쳐 주민설문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광양제철 가족 견학 프로그램 인기

여름방학 기간 630여명 찾아 '철 생산과정' 현장교육

광양제철소가 올 여름방학 기간 포스코 가족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광양제철소는 27일 "이번 여름방학 기간 모두 630여명이 제철소를 찾아 여름 무더위 속에서 40도가 넘는 공장 안의 열기를 생생하게 느꼈다"고 밝혔다. 〈사진〉

광양제철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싶어했던 지역 어린이와 노인 등에게 광양제철소의 지역 내 위상을 알리고 직원이 동행해 '철 생산과정'을 일일이 설명했다.

방문객들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용광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제련과정 등을 살펴봤다.

아이들과 함께 광양제철소를 찾은 안난희씨는 "철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고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안전문화 체험이 유익했다"며 "열정으로 철을 만들고 사랑으로 안전을 일구는 광양제철소 직원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하계 계절 견학 프로그램 외에도 평일 단체 견학, 일요 정기 견학 등을 실시해 세계 최대 규모의 광양제철소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전남산 천일염 우수성 알린다"

28~31일 '소금박람회' 서울 코엑스

국산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소금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전남도는 '미네랄은 높이고~나트륨은 줄이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3 소금박람회를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는 소금박람회는 '우수급식산업대전'과 함께 개최함으로써 친환경 급식시장에서 천일염 사용량을 늘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된 이후 2009년부터 시작된 소금박람회는 5년이 지나면서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확대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남산 갯벌천일염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도록 제품 전시관, 홍보관, 체험관, 정보관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수도권 소비자들이 친환경 염전에서 생산한 우수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가공기업은 물론 천일염전과 생산자단체들이 많이 참가한다.

부대행사로 학술 심포지엄, 천일염 사용 협약식, 시범학교 기념식, 국산 천일염 골라내기 등 다양한 기획도 마련했다.

'갯벌 천일염의 식품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하는 심포지엄에선 천일염이 발효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식품 연구가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